

배출가스 위반 눈 감아준 자동차검사소

영터리 차량 검사 대거 적발 광주·전남·전북 29곳중 12곳 충남 이어 전국 2번째 적발률

부정검사를 일삼은 광주, 전남·북 지역 민간자동차검사소가 당국의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배주기식 검사를 진행하며 자동차 불법 튜닝, 배출가스 기준 초과 등을 묵인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44곳, 위반사항 46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 전남·북지역에서는 업소 29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2곳(광주 1곳·전남 4곳

·전북 7곳)이 적발됐다. 이는 충남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적발률(41.4%)이다. 충남은 점검 대상 17곳 중 14곳(적발률 82.4%)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률은 광주, 전남·북에 이어 대전·강원·충북지역(적발률 20%·점검대상 10곳 중 2곳 위반), 부산, 울산, 대구, 경남·북지역(적발률 19.6%·46곳 중 9곳), 서울·인천·경기지역(적발률 15.2%·46곳 중 7곳)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업체는 검사기기 관리미흡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수치 부정확, 검사과정 영상촬영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전남 2개 업체도 자동차 배출가스 수치 부정, 2개 업체는 아예 일부 검사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 1개 업체는 검사 결과를 허위 기록하는 방법으로 차량 안전 기준 위반차량에 대해 합격처리했

다. 또 3개 업체는 자동차 배출가스 수치 부정확, 나머지 3개 업체는 일부 검사를 생략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업무정지 10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검사기기 관리미흡이 21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 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 등이었다.

이번 특별점검은 그동안 민간자동차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검사소에 비해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이번호 6일까지 진행했다. 점검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5개 점검팀

을 구성해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전국 민간 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부정검사 의심 사항은 검사시스템에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거나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경우다.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것도 포함됐다.

정부는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가 만연한 원인에 대해 고객 유지를 위한 과다 경쟁을 꼽고 있다. 또 검사원 교육, 시설개선이 미흡해 제대로 된 부적합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1 | 해질 19:46 | 달뜨기 11:03 | 달짐 23:34

광프리카
당분간 야외활동은 자제하세요

광주	맑음	24/36	보성	맑음	22/34
목포	맑음	25/33	순천	맑음	25/34
여수	맑음	25/32	영광	맑음	23/33
나주	맑음	23/35	진도	맑음	23/33
완도	맑음	24/33	전주	맑음	24/45
구례	맑음	23/36	군산	맑음	23/33
강진	맑음	23/34	남원	맑음	23/35
해남	맑음	22/33	흑산도	맑음	23/29
장성	맑음	22/3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	남동~남	0.5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0.5
	면바다(동)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면바다(서)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생황지수

주의	식중독
위험	지외선
보통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1:14	06:11
여수	23:25	18:27
	06:45	00:42
	19:00	13:04

◇주간 날씨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	☀	☀	☀	☀	☀	☀
25/36	25/36	25/36	25/36	25/36	25/36	25/35



삼계탕집 앞 초복 장사진
초복인 17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유명 삼계탕집 앞 삼계탕으로 점심식사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털진드기 체포령

SFTS·쓰쓰가무시병 동시 감염 규명 나서

가을철 유행질환인 쓰쓰가무시병을 일으키는 '털진드기 체포령'이 내려졌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 서식하는 털진드기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 바이러스를 가졌는지, 또 이 바이러스를 사람에게 옮기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SFTS 감염 환자로 진단된 할머니(75)에 대한 유전자 검사결과, 털진드기가 옮기는 쓰쓰가무시병에도 동시 감염됐다는 국내 첫 보고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보고 논문을 작성한 제주대의 이근화 교수팀은 피해 할머니의 몸에 SFTS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이빨 자국을 찾을 수 없는 점으로 마뮀 털진드기가 두 가지 감염병을 모두 매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했다.

질본은 털진드기가 활동을 시작하는 오는 10~11월 전국에서 털진드기를 채집해 SFTS 바이러스 분리 유전자검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번 검사결과, 털진드기에서도 SFTS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작은소창진드기에 이어 SFTS를 일으키는 매개 진드기로 지정될 전망이다.

털진드기는 사람을 물었을 때 세포 내기생세균인 '오리엔티아 쓰쓰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을 옮겨 쓰쓰가무시병을 일으킨다. SFTS는 지금까지 야생진드기의 일종인 작은소창진드기에 물렸을 때만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왔다. /연합뉴스

꺾일줄 모르는 가마솥 더위 1994년 '폭염 기록' 깨질까

내주까지 무더위·열대야 올 여름 기록적 폭염 전망

올 여름 광주의 평균 최고기온이 기상 관측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1939년 이후 2번째로 무더운 날씨가 나타났다. 또 같은기간 발생한 폭염도 7일간 나타나면서 역대 4위를 기록했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939년부터 올해까지 광주 여름(6월1일부터 7월16일) 평균 최고기온은 1994년 30.3도로 가장 높았으며, 2018·2017년 30도, 1958년 29.7도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폭염일수도 1994년 11일, 2017년 9일, 1958년 8일, 2018년 7일로 기록됐다.

광주는 여름동안 유례없는 무더위가 몰아친 1994년에 이어 2번째로 덥고 폭염일수는 4번째로 많은 역대급 무더위가 나타났다. /김한영 기자 young@

이날 오후 4시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매우 높게 치솟았다.

이런 폭염은 지난 11일부터 일주일째 전국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경보·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또 같은기간 발생한 폭염도 7일간 나타나면서 역대 4위를 기록했다.

최근 유라시아 대륙이 평년보다 매우 강하게 가열되면서 대기 상층의 고온 건조한 티베트(고기압) 발달해 한반도 부근으로 확장한 것이 우리나라 폭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요즘 한반도 부근의 공기 흐름이 느려진 탓에 이런 기압 배치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적어도 다음 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한영 기자 young@

"5·18 진상규명, 아르헨티나 과거사 처리 참조해야"

5·18기념재단 연구보고서

오는 9월 출범하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아르헨티나의 과거사 정리 과정을 참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기념재단은 17일 연구보고서 '불처벌을 넘어서:아르헨티나 이행기 정의 실천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최용주 비상임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군부독재 시절에 자행된 혹독한 인권탄압과 국가폭력의 가해

자들을 철저히 사법처리하는 등 모범적으로 실천한 국가로 평가된다는 분석이다.

아르헨티나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군부독재를 거쳐서 민주주의 시대로 들어섰다.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선 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군부세력의 압력을 극복하고 사면된 전직 대통령과 군 통수권자를 다시 구속해 처벌하는 등 30여년에 걸쳐서 인적정산 작업을 추진했다.

이 보고서는 아르헨티나 사례와는 달리 광주에서는 광범위하게 자행된 인권 유린

에 대한 처벌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두환 신군부의 조직적 폭력을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관점에서 재조사해야 하고, 5·18 당시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재단은 칠레·우루과이·브라질·멕시코·대만 등의 과거정산 사례를 발굴·분석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t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내대: 430-8801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